

테러 확산의 문명 갈등적 요인 : 기독교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공배완*

요 약

세계의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적인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족과 문명,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지역 패권주의적 경향이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물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명 간의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대립과 갈등은 국제정치적 양상으로 표면화 되고 있으며, 인류안보에 위협요소로 다가서고 있다. 기독교 정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구 신진국의 경우 인류의 구원과 세계평화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비민주성, 인권, 여성의 권리, 저개발, 핵문제 등을 기독교의 정신과 연계하면서 후진문명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앞세워 서구식 발전모델을 강요하고 있다. 절대 일신교를 믿는 이슬람은 그 신(神)만을 주님으로 정해 '노예'가 되어 섬기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으며, 종교적·정치적·사회적 및 문화적 성격이 깊이 배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인접하고 있어 집중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슬람의 교리가 '코란'과 '칼'이라는 폭력적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문화 간 충돌에서 나타나는 무력적인 방법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 충돌은 종교적 갈등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는 민족 간의 대립과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 깊은 종교적 대립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생존권 다툼에서 비롯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문명의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과 확산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명은 민족의 상징이며 종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Civilization conflict factors of the spread of Terrorism - Focusing on Islam and Christianity -

Gong Bae Wan*

ABSTRACT

Occur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and the new aspects of the regional conflict is spreading. Nation and civilization, one based on religious ideology, hegemonic tendencies areas of conflict are factors that appear. It has the characteristic that inheritance and conflict between civilizations is spreading. Christian and Islamic books, especially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is surfaced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spects, and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human race is approaching. To assert the superiority of Western Christianity emerging countries, the salvation of mankind and world peace mission with the historical non-democracy, human rights, women's rights, underdevelopment, nuclear issues, and the spirit of Christian civilization, considered to be linked and reverse, Democracy Launching and human rights issues are forcing Western development model. Islam believes in absolute monotheism that God Lord only determined by the 'slave' and having the determination to serve the religiou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nature ingrained, and closely adjacent to each other geographically, to focus on in quency characteristics higher than the other civilizations are appearing. To assert the doctrine of non-violent Islam 'Koran' and 'knife' became known as the violent images appear in the armed conflict between the culture method. Today the world is facing a clash of civilizations is derived from the religious conflicts and confrontation and friction between the nations appear. In particular, the deep religious roots of Christianity and Islam, the Arab-Israeli conflict, including the right to live in strife confrontation between Christianity and Islam was spread. By a factor of civilization and the spread of terrorism occurred historically proven came here from all over the earth that is being generated is true. Civilization are the symbol of the nation and the species identity.

Key words : civilization conflict, religion conflict, Christian civilization, Islam civilization, terrorism

접수일(2013년 9월 29일), 수정일(1차: 2013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2013년 10월 16일)

*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 이 연구결과물은 2013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
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서론

세계적 차원의 통합적 분쟁 위험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소멸로 인하여 감소되었지만 국지적 분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족주의의 분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지역적·인종적 차별, 종교 갈등의 심화 등이 테러 양상의 국지적 분쟁을 유발하는 동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과거 초강대국간의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 민족과 문명,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지역 패권주의적 경향이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과 문명을 바탕으로 한 패권적 부활은 영속성을 지니면서 대물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갈등의 심화와 경제적 발전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종교적 대립요인은 문명 간의 충돌요인으로 상징되고 있다. 헨팅턴(Samual P. Huntington)은 1992년 'Foreign Affairs' 에 <문명의 충돌>이란 글을 통해 '문명충돌론'을 제기했으며, 1996년 <문명의 충돌: 세계질서의 재편(The Clash of civilizations: Remaking of World Order)>라는 책을 통해 냉전의 종언과 함께 국제질서의 가장 심각한 분쟁쟁점은 문명 간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냉전시대에는 종교적·인종적 갈등의 시대가 되었다[27]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며, 조던-바이치코프(Jordan-Bychkov)와 도모쉬(Domosh)는 종교분쟁은 '세 번째 세계전쟁(World War III)'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역사는 종교적인 동기를 가진 지도자와 공동체가 그들이 믿는 신념의 이름으로 폭력과 테러를 자행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계주의(globalism)와 부족주의(tribalism) 또는 문명의 충돌에 대한 논쟁은 인간운명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10]. 특히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대립과 갈등은 국제정치적 양상으로 표면화 되고 있으며, 인류안보에 위협요소로 다가서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명 간의 충돌은 중층적 분쟁을 동반하면서 다양한 공격양상과 테러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문명의 갈등적 요인이 테러발생의 동인(動因)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보려 한다. 헨팅턴은(1996) 문명권을 구분하는 1차적 기준은 종교이며,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 충돌은 종교적 갈등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와

이슬람은 테러확산의 문명갈등적 요인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테러리즘의 사전적 정의는 정치, 종교, 사상적 목적을 위해 폭력의 방법을 통한 개인이나 단체, 국가에 대해 공포심을 유발시키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12].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포정치의 대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한 테러(terror)의 용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괄적 정의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대표적 기구인 UN 안보위원회 결의(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에 따르면 테러는 '민간인을 상대로 하여 사망 혹은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를 가하여 대중 혹은 어떤 집단의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어떤 사람, 대중, 정부, 국제 조직 등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테러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테드 거(Ted R. Gurr)의 '상대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은 '좌절-공격이론(Frustration-Aggression)'으로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 이론은 사회적 욕구형성도가 사회적 욕구만족도를 훨씬 초과할 때 사회·심리적으로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것은 곧 폭력적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5]. 테러의 수단으로서 폭력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으로서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식민지 저항에 대한 폭력[21], 헤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의 실증주의적 경향이 편제한 현대 물질산업구조에 대한 시민폭력[25], 카를로스 마리겔라(Carlos Marighela)의 도시 게릴라 이론 등이 있다. 특히 도시 게릴라 이론은 저항 수단으로서 테러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숙점, 기습과 잠입, 점령, 매복, 시가전, 납치, 처형, 파괴공작, 심리전 등-까지 주장하면서 테러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대항방법이라고 설명했다[18]. 또한 새뮤얼 헨팅턴(Samual P.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 조던-바이치코프(Jordan-Bychkov)와

도모쉬(Domosh)의 종교분쟁론 등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설명으로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헌팅턴은 탈냉전시대에서의 갈등구조의 핵심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경제가 아니라 종교문명 간의 충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힘과 가치에 대한 비서구의 대응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3.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3.1 문명의 속성

‘문명’은 ‘문화’와 대치(對置)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와 문화의 특수한 한 형태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크게 나뉜다. 전자의 경우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에 의해서 ‘문화’와 ‘문명’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문화의 복합체로서 문명을 이해하고 있다[6]. 문화가 전통과 개별성을 강조하고 과거 지향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문명은 미래 지향적이며 인류의 진보와 이성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16]. 라틴어의 키비스(civis, 시민)와 키빌리타스(civilitas, 도시)에서 유래한 문명은 국민국가 형성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문명은 국가나 단체의 전통과 관습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신적·물질적 진보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문화의 정신적 요소와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발전되고 인간의 지혜로 인하여 사회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진보된 상태를 문명의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는 정의하고자 한다.

문명은 비 서유럽 세계에 대한 서유럽의 자기의식으로 선진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시작되었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들이 ‘야만’의 개념과 반대되는 뜻으로 ‘문명’의 의미를 사용하였고, 이는 정착생활을 하며 도시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사회와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10]. 따라서 문명은 자국의 가치를 가장 뛰어난 보편적 가치로 평가하여 세계에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문명의 사명’이라는 이름 하에 후진국에 대한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가 이루어져 왔다[16]. 문명은 인간의 정신적 가치존중에 의한 사회발전이라는 명제를 두고 있으므로, 현재는 ‘인권’이 ‘문명’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고, 문명이

테올로기로서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후진국에 대해 패권국의 간섭이나 침략이 정당화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의 인권 후진국에 대한 간섭도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대항은 문명 간의 충돌로 비추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명은 ‘공유성’과 ‘통합성’ ‘진화성’의 특수한 속성을 갖는다[2]. ‘공유성’은 집단 구성원들이 갖는 공통된 습성을 말한다. 즉, 한 집단에 있어서의 구성원들의 행위는 개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단의 행위와 구별되는 공동체적인 특징을 말한다. 따라서 문명은 개인의 소유형태가 아닌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위양식인 것이다. ‘통합성’은 문화의 구성요소들이 개별적 독립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관계의 형태로 통합된 형태의 체계성을 이루면서 문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의 각 구성요소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계 되어 각각의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문명의 ‘진화성’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고와 가치관, 생활습관 등을 포함한 물질적인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 과거 삶의 방식과 사고가 시대적인 사회환경에 맞게 변화하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은 문명 ‘진화성’의 속성 때문이다.

문명은 광범위한 문화적 실체로서 지역, 민족집단, 국민, 종교집단에 따라 독특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문명의 속성은 단체나 국가 간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개인성을 가지고 있다. 선진화된 문명이 강요될 때나 문명의 특성으로 인한 내부결속과 외부배척이 발생할 때 극단적인 마찰양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2 서구사회와 기독교 문명

종교의 사전적 의미는 ‘초월적인 신(절대자)을 믿고 숭배하여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문화의 총체적인 체계’이다[16]. 일반적으로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는 신에 대한 숭배를 핵심으로 하는 신앙체계, 즉 종교 신앙과 실천활동으로서 종교의식, 종교경험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과 단체는 특별한 신념과 사명감, 또는 종교적 의지를 갖게 됨으

로서 집단의 특징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불교, 이슬람교와 함께 세계 3개 종교의 하나이다.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월호에 수록된 '2013 세계 선교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구촌 71억 인구 중 기독교(천주교, 개신교 등) 신앙인이 23억 5452만여 명으로 전체 종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개신교 인구는 4억 3956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뒤를 이어 이슬람이 16억 3531만여 명, 힌두교가 9억 8232만여 명, 불교가 5억 96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5].

현재의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3개로 크게 나뉘며, 각각 신학, 제도 등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신도를 몸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신체'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 영혼은 지금도 생동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신앙은 일치하고 있다[4]. 이러한 기독교 사상은 그리스 사상과 더불어 유럽 사상을 형성하는 2개의 조류로서 그 역할을 해 왔고, 서구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으며, 자본주의의 발전수단으로 작용을 해 왔다.

종교적 요소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중세의 유럽사회의 보편적 윤리로서 역할을 하며 자리 잡았다. 따라서 기독교는 서구사회에서 단순한 종교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사상 등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서구문화의 배경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서구사회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했다[17]. 미국 역시 유럽의 영향권에서 기독교사상을 배경으로 문화적 발전과 국가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미국적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롤 모델로서 저개발 국가에 적지 않은 영향력으로 파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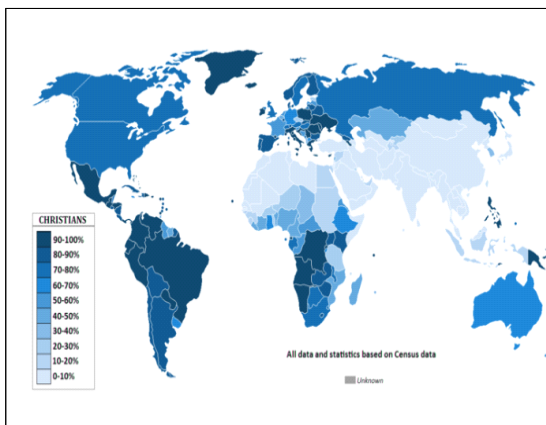
초기 기독교의 사상은 신(神) 중심의 세계 사상이었고, 사회체제는 기독교와의 종속관계에서 하부구조로 전락하여 기독교 일체적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 중세에 들어와서는 하느님의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조되면서 개인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의지문제에 귀착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과학의 사회적 유용성과 더불어 종교적 권위대신 세속적인 권위가 반기독교적인 요소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경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사회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근대 이

후의 서구사회는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인간중심의 세속적 조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활동의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종교개혁은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 가치 측면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무한가치를 말하며[22], 이는 세속적 권위에 의해 보장을 받는다.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은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기독교의 코스모폴리탄적 보편적 사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기독교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본질로서 민주주의를 탄생시켰고, 서구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정신의 단계적 발전을 통해 형성된 인간중심의 정치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는 '보편주의'와 '박애주의' '개척주의'의 특징을 가지면서 서구사회에서 상대적 우월 문명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보편주의(普遍主義)는 개체주의 혹은 개인주의에 대립되는 말로 개별적 사물의 밑바탕은 보편적 일반성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개별자(個別者)는 전체(보편성)에 의해서 존재와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12]. 경우에 따라 보편주의는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것을 자신의 행위를 보편성의 구현이라고 생각하는 특수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을 정당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7]. 따라서 기독교 중심체제의 정치·사회적 제도 속에서 서구사회는 보편주의의 기치아래 인간적 가치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로서 인류의 평화를 전체의 공동체 의식으로 부각시켰고, 기독교 중심적 범 유럽화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면서 기독교적 보편주의를 비 서구권으로 확대해 나갔다.. '박애주의(博愛主義, Philanthropism)'는 온 인류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이념가치로서 정치적·철학적·윤리적인 개념으로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국가적 이기심 또는 종교적 차별을 버리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 인류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원리[4]를 말한다. 이는 서구사회의 기독교 문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박애주의 정신은 기독교 확산의 주요 원리로 작용을 하였다. '개척주의(frontierism)'는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열어 가는 것으로서 발전과 발달을 내포하고 있다. 15세기 유럽인들의 탐험정신과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금은보화의 획득과 더불어 종교적 사명인 기독교의 진파였다. 이러한 서구인들의 개척정신은 ‘신의 도시’ 건설로 미국을 탄생시켰고,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세계의 리더로서, 기독교 문명의 전파자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독교 문명은 이념적으로 서구사회를 통합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19], 박애주의와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서구인들의 결속력을 가져왔으며, 비서구인들에 대한 문화전파자로서 개척주의적 역할을 하였다. 문화의 전파는 수용자의 답습여부에 따라 갈등과 조화를 만들어 내고, 정치, 경제적 배경이 포함될 경우 이질적 문명 간의 문화접변은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갈등과 마찰은 배타적 문명 간의 접변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가발전과 더불어 기독교 정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구 신진국의 경우 인류의 구원과 세계평화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비민주성, 인권, 여성의 권리, 저개발, 핵문제 등을 기독교의 정신과 연계하면서 후진문명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앞세워 서구식 발전모델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감춘 서구식 정치·경제적 발전모델의 강요는 이질적 문명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민족집단에게는 정치적 종속관계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반항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테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 세계 기독교(천주교+개신교) 분포도

(출처: google.co.kr)

3.3 중동과 이슬람 문명

이슬람교는 아랍의 예언자인 무하마드(Muhammad)가 만든 일신교로서 기독교에 이어 16억 3531만여 명의 두 번째로 많은 신앙인을 가지고 있다. 서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대륙,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하는 57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단일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12]. “이슬람”이란 뜻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인도 한다’는 의미로 “복종·순종”이란 뜻[4]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평화적인 폭력이 이슬람 종교성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슬람교의 신 알라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하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아 성립된 종교로서 신은 하나이며, 창조주이며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일신교를 신봉한 가장 최초의 신앙이 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도 파생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교’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진 ‘영원한 종교’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4]. 따라서 무하마드는 아랍민족의 최고의 신(神)이며 세계의 신(神)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슬람교는 인간의 창조에서 최후의 심판과 내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같은 맥락에서 있지만, 예수를 마호메트와 함께 신이 아닌 예언자로 생각하며 신과 인간의 직접 접촉과 직접 구원을 주장하고 있고, 유일신인 알라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문화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슬람교와 중동지역을 떠올리게 된다. 이는 종교가 중심이 된 이슬람 문화는 그에 따른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 탄생한 이슬람은 아라비아의 척박한 생태조건에서 두터운 문화적 하부구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발아한 종교로서 종교적 융성을 이루기까지는 개방적 자세로 주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화함으로써 급속한 발전을 거듭한 공존과 상생의 종교이다. 따라서 이슬람 문명은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범세계적인 성장문명이고, 1400여년이나 존속되어 나름의 가치를 과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안문명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10]. 7세기 초 이슬람교의 출현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한 이슬람 문명은 정교합일의 이슬람 공동체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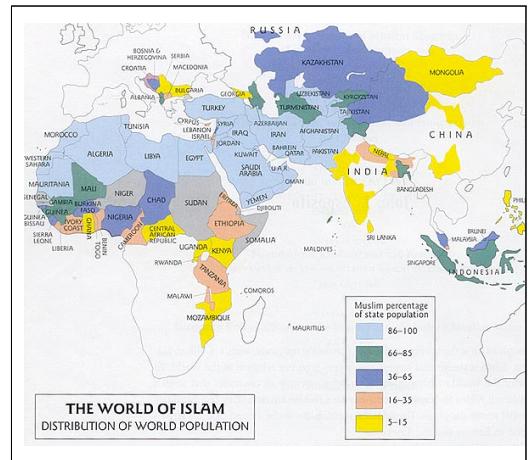
정복을 전개하여 아라비아 반도와 그 주변국들을 이슬람화 함으로서 이슬람 문명권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이슬람교는 범세계적 종교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세계의 광활한 지역을 망라하여 한 문명권을 이루어 인류문명의 발달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 따라서, 이슬람 문명은 오랜 세월을 걸쳐 다양한 문화, 언어, 역사, 종족에 의해 확산되면서 여러 민족과 나라의 다양한 고유문화가 이슬람이라는 용광로에 녹아 만들어진 다원적 문명의 단일화 형태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30]. 이에 따라 무슬림 안에는 매우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유산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이슬람이라는 교리로 통제되고, 코란에 대한 공통의 신조와 믿음의 강령들을 따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문명권은 이슬람이라는 특정종교를 공통분모를 기초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고유의 종교적·정치적·사회적 및 문화적 성격이 깊이 배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인접하고 있어 집중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30]. 무슬림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가족(Family)’과 ‘명예(Honor)’의 덕목도 이슬람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역할을 했다. 무슬림들은 ‘가족’의 개념으로 관계형성을 하고 친밀도를 유지하며, 이러한 과정을 명예심과 충성심으로 나타냈다. 반면, 이것이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와 충성심이 공격적인 양상으로 전환된다[31].

또한 이슬람 문명권은 피정복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아랍제국이 이슬람이라는 공통된 종교적 이념에 비이슬람권을 강제통합하면서 중앙집권적이고 범세계적인 이슬람 문명권이 형성될 수 있었다. 오늘날 이슬람은 단순한 신앙체계를 넘어서 통합된 문명의 양식체이며 인간의 생존이념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 이슬람도 평화와 평등을 최고의 덕목으로 실천 가치를 표명하고 있으나, 도전적이고 패권주의적인 교리의 확장은 ‘정복’과 ‘굴복’을 요구함으로써 종교적 포용성이 상실되고 오히려 타 문명과의 마찰과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30]. 특히 코란은 ‘이슬람을 전하는데 있어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며, 이슬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다(코란 8:39)’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폭력

을 종교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슬람은 ‘절대 일신교’이다. 이것은 신앙의 대상인 신(神)이 ‘아브라함의 신’이고, 그 신(神)만을 주님으로 정해 ‘노예’가 되어 섬기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어 종교적 문화접변이나 흡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타종교와의 접합점이 발생할 때 전투적 양상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내부적으로는 가족의 관계로 결속을 강화하고 주님에 대한 명예를 신앙으로 강조하면서 타 문화의 유입이나 교리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질문화에 대한 접촉은 무력적인 탄압과 굴복으로 다스렸다.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슬람의 교리가 ‘코란’과 ‘칼’이라는 폭력적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문화 간 충돌에서 나타나는 무력적인 방법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중동에서 이슬람원리주의가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부활하면서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정치·경제적인 문제도 종교적 이념과 연관하여 이슬람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무력적인 투쟁양상은 더욱 격렬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림 2) 세계 이슬람교 분포도

(출처: goole.co.kr)

4. 문명갈등과 테러 확산

4.1 기독교의 보편적 자본주의

자본주의(capitalism)는 근대경제체제의 구조와 그 운동법칙을 밝히기 위하여 마르크스(Marx, K.H.) 등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정치·경제·사회적 용어이다. 사전적 의미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를 말한다[4]. 역사적으로 본다면 자본주의는 16세기부터 시작하여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을 계기로 서구사회에 사회경제체제로서 보편화되었으며, 공산주의 사회체제와 오랜 대결을 벌이다 공산주의 몰락 후 현재에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여 사회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사유재산제도의 인정, 자유경쟁주의, 경제활동의 자유, 영리주의, 교환경제, 시장경제, 노동력의 상품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막스베버(Max Weber)는 자본주의의 발달요인을 자본주의의 정신, 즉 문화가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달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본주의 그 자체가 갖는 사회 하부구조 때문이 아니라 문화가치 요소인 ‘자본주의 정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견해이다. 자본주의 정신은 합리적 조직과 경영, 산업가들의 신념과 가치관, 정상적 과정에 부의 획득, 창의적 직업활동 등의 기독교적 정신을 말한다[8]. 기독교의 보편주의가 자본주의 경제조직에 접목되면서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 왔으며, 자본주의의 팽창과 발달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정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보편적 자본주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발달 또는 자본주의의 보편화를 의미한다.

서구사회가 발달하면서 기독교의 보편적 자본주의는 선진문명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저개발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종속적 상하관계를 형성하며 자본주의의 가치와 원칙이 강요되었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지구상에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인 ‘공산주의(communism)’가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의 확산에는 제동이 걸렸고, 세계

체제는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양대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사유’보다는 ‘공유’를 주창한 공산주의는 자본적 요인에 의한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인간 중심의 평등사회 구축을 기치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양극화 현상은 이념적 문명을 바탕으로 한 무력대결의 극치였으며, 세력권의 대결이었고, 제3세계의 종속이 강요되는 시대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저개발국 또는 저문명 국가들은 양대 세력권 중 어느 한 편에 속해 있어야만 국가체제를 보장 받을 수 있었다. 이 결과 국제사회는 뚜렷하게 동·서로 양분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고, 그 정점에는 미국과 소련이 있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억지력으로 작용을 하며, 세계평화 보전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동구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서구 자본주의의 팽창은 반기독교 성향의 국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며 새로운 형국을 맞게 된다. 신(神)을 내세우지 않고 개인적 안심입명을 실천하는 불교나 힌두교와는 달리 ‘유일신’만을 믿으며 지구상 이슬람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이슬람주의의 대항은 냉소적 기독교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는 양문명 간 충돌의 정점이었고, 이슬람 종교주의자들의 대담성이 공개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종교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최대의 사건이었으며, 이슬람권의 투쟁과 결속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이슬람권의 반작용은 타협될 수 없는 이질적인 종교문화적 요인과 종교적 신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4.2 이슬람의 광신적 종교주의

이슬람의 광신적 종교주의, 즉 이슬람 원리주의가 부활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테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지만, 테러리즘이란 용어가 쓰여 지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대혁명에서부터이다. 따라서 테러는 절대 강자에 대한 약자의 강력한 무력대응 방식이었고,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동파에 대한 탄압, 강권정치의 한 방법이었다. 1917년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자행된 러시아의 탄압도 테러였으며, 서구사회에 대한 이슬람권의 무력투쟁도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탈냉전이후에는 미국의 대

항세력으로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개혁 운동’ ‘이슬람 정통주의’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이슬람의 교리를 바탕으로 정치,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고, 이슬람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며, 코란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원리주의 운동을 말한다. 이후 원리주의자들은 현재의 세속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헌법으로 삼는 이슬람 공화국의 창설을 최대 목표로 하며, 초대 이슬람교의 순결한 정신과 도덕 회복을 위해서는 코란과 수나의 불가침성을 인정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원리주의자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와 신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고 반(反)외세, 특히 서구적인 정치사상과 사회제도를 경원시하여 이를 배격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4]. 이들은 과격한 행동을 통해 이슬람의 교리를 정립하고 신성한 이슬람 국가를 설립하고자 했다.

과거 서구 기독교 사회와 함께 중세 시대를 양분했던 이슬람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서구 기독교사회에 뒤처지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1,2차 대전이후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이슬람 사회는 대·외적 요인에서 찾고 있었다. 내적 요인으로서 이슬람 체제의 내부 불안정이었고, 외적 요인으로서 이슬람권에 집중된 석유 참탈을 향한 서구 기독교 열강들의 진출이었다. 따라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 사회가 혼란에 빠져드는 원인을 서구 기독교 이념의 진출에서 찾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서구 열강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무슬림 형제단(The Muslim Brotherhood in flux)은 1928년 이집트의 하산 알반나에 의해 설립된 아랍 최초의 범이슬람주의 단체이다. 이후 1964년에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DFLP)가 설립되었고, 1980년대에는 지하드, 탈레반, 하마스, 헤즈볼라, 알카에다 등 반미 테러 성격의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서구의 세속적인 물질주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이슬람 교리에 따른 공동체 건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슬람에 대립하는 서구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 원리에 기초하지 않은 이슬람 정부도 타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의 공통된 목

표는 친미 정권을 축출하고 이슬람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 이슬람도 교리자체가 유희투쟁보다는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마녀사냥, 남미 원주민 학살, 자살테러 등 종교적 이념에 입각한 극단적인 투쟁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희투쟁도 광신적 종교주의에 의한 종교가 정치화되고, 민족투쟁의 수단으로서 종교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쟁의 기저에는 종교관을 형성시킨 문화적인 요소가 잠재해 있고,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문명 간 융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타 문명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가 마찰로 인해 공격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3 문명갈등과 테러확산

문명은 세계정치의 중요한 분석단위로 등장 되었다. 문명은 궁극적으로 민족 또는 종족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명은 각 문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마찰이 일어나고, 종교를 통한 정체성 회복운동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종교는 문명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10]. 헌팅턴(Samual P. Huntington)에 따르면, 문명권을 구분하는 1차 기준은 종교이며, 이에 따라 기독교권, 정교권, 이슬람권, 유교권, 불교권, 힌두권 등이 설정되고 있다. 이 외에 라틴 아메리카권, 아프리카권(비이슬람), 일본권 등도 설정된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 충돌은 종교적 갈등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는 민족 간의 대립과 마찰로 나타난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깊은 종교적 대립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생존권 다툼에서 비롯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알라신이 만든 신성한 세계를 서구사회의 기독교 문명이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며 서구사회를 타도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1]. 기독교와 이슬람의 두 종교 간의 악연의 끈은 1000년이다 되도록 이어져왔다. 11세기 기독교가 성지탈환을 목적으로 일으킨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문명 간의 충돌은 시작되었다. 10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9.11테러

와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미국의 중동침공은 새로운 십자군 전쟁의 양상으로 변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는 전 세계에서 3,542건의 테러로 26,037명의 인명피해(사망 8,783명·부상 17,254명)가 발생하였고, 2010년 대비 발생건수는 20%(2,937건→3,542건) 증가하였다. 테러사건을 성향별로 보면 알 카에다·탈레반 연계세력 등에 의한 이슬람극단주의 테러가 2,521건(7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러시아·터키 등지의 분리주의 테러가 252건(7%)이었고, 인도·필리핀·콜롬비아 등지의 극좌테러가 199건(6%) 발생하였다. 따라서 전체 테러의 71%가 종교적 요인에 의한 문명마찰로 나타난 것이다. 2005년 이후 연도별 테러발생건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연도별 테러발생 현황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건수 | 1877 | 2891 | 3435 | 3211 | 3376 | 2937 | 3542 |
| 사망 | 7133 | 13364 | 14019 | 11483 | 9577 | 10198 | 8783 |
| 부상 | 14018 | 24595 | 24555 | 21965 | 11438 | 20762 | 17254 |

*자료: 경찰청(2013)

테러사건은 세계 각국의 대테러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반미성향을 띤 테러집단에 의해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의 충돌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 결 론

문명은 종족과 민족의 문제이다. 문명의 충돌은 지구적 규모에서 펼쳐지는 민족 간의 분쟁이다[10]. 역사적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이한 문명에 속하는 국가들과 집단들의 관계는 대체로 적대적인 성향을 띠며 충돌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는 문명의 핵심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고, 극단주의적 종교주의 부활은 문명

충돌의 집화원이 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립과 마찰은 십자군 전쟁이후 지속되어오고 있는 양상이며, 무차별 테러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독교의 보편적 사상이 저개발국으로 전파되는 이상, 이슬람 원리주의도 코란을 헌법으로 하는 이슬람 국가 설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구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논리로 이슬람권에 진출한다면 무슬림의 정체성은 적극적인 대항을 무력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것이다.

문명의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과 확산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명은 민족의 상징이며 종족의 정체성이다. 따라서 문명의 포기는 민족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도 증폭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참고문헌

- [1] 강영숙, 이상철, ‘테러리즘의 이해’, 진영사, 2008
- [2] 공배완, “문화가치와 사회발전”, 주성대학논문집, 1999
- [3] 경찰청통계, 2012.
- [4] 네이버지식백과, 2013
- [5] 뉴스천지, 2013. 9. 26.
- [6] 두산백과, 2013
- [7] 미히라 요시아키, “보편주의와 보편성의 차이”, 한국학연구 제27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6.30.
- [8] 이종수 역, ‘막스베버의 학문과 사상’, 한길사, 1988
- [9] 이혁배 역, ‘종교근본주의와 종교분쟁’, 바이북스, 2007
- [10] 이휘재 역(Samual P. Huntington),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 [11] 위진욱, “중동테러리즘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국방대학교, 2002.
- [12] 위키백과, 2013
- [13] 조상현, “중동지역 분쟁의 원인과 중동 테러리즘

- 생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대학교, 2008.
- [14] 최기남, “중동테러리즘에 대한 한국경호 안전도 극대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05.
- [15]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2006.
- [16]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2
- [17] Catherine Haguenu-Moizard, ‘Etats et Religions en Europe’, Grenoble: Pub, 2000
- [18] Carlos Marighela ‘Minimanual of the Urban Guerrilla’, Red and Black Publishers, 2008
- [19] Charles-Olivier Carbonell, ‘Une histoire européenne de l’Europe’, Paris: Privat, 1999
- [20] Domosh Mona, ‘Selling Civilization: A Cultural Geography Of American Imperialism’, Routledge, 2005
- [21] Frantz Fanon, ‘Les Damnés de la Terre’, Edition Maspero, 1961
- [22] Jean-Charles Asselain, Pierre Delfaud, etc., ‘Précis d’Histoire Européenne’, Paris:, Armand, Colin, 1993
- [23] Jordan-Bychkov, ‘Human Mosaic’, W. H. Freeman & Co. 2005
- [24] Marcuse Herbert, ‘Counterrevolution and Revolt’, Boston: Beacon Press, 1972
- [25] Marcuse Herbert, ‘Reason and Revolution’, Boston: Beacon Press, 1960
- [26] Jim Miles, ‘Nationalism Trumps Theology’, Random House, 2005
- [27] Paul R Spickard, ‘Multiple Identities: Migrants Ethnicity and Membership’, Indiana University, 2013
- [28] Ted R. Gurr, ‘Handbook of political conflict: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1980
- [29] <http://k.daum.net/qna/view.html?qid=40XzVko.wikipedia.org>, 2013
- [30] <http://blog.daum.net/gtg0488/16013018>
- [31] <http://www.islammission.org/islam/culture/culture.htm>

[저자소개]



공 배 완 (Bae-Wan Gong)

1989년 6월 학사

1990년 6월 석사

1993년 6월 박사

email : gongbw@naver.com